



“주님 공헌 대축일”

[마태 2, 1-12,]

<http://www.sjkoreancatholic.org/>
2011.1.2

금주의 강론

[김 영수 신부님 강론에서] “하느님의 선물 “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귀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신 선물입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 선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선물을 알아보고 그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느님의 선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로데는 하느님의 선물을 거부하고 그 선물을 내동댕이치고 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마저도 흔적 없이 해치우고자 하는 헤로데의 모습은 다른 생명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내고자하는 ‘죽음의 문화’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입니다.

주님 공헌 축일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을 세상에 여는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선물 안에 담긴 ‘하느님의 심오한 계획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

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몸의 지체가 되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에페 3, 6)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의 선물은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가족들 안에, 함께 사는 이웃들 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하느님의 선물에 인도하는 표징입니다. 비록 시간을 내야하고,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함께해주는 일이 힘들게 느껴져도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하느님의 심오한 계획’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선물에 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금과 같이 고귀하고 변치 않는 신념, 유랑처럼 피어오르는 거룩한 삶,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증언하는 진실한 사랑을 하느님의 선물에 대한 예물로 봉헌함으로써 그분의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끊임없는 기도와 아낌없는 봉사로 함께 하여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주님의 축복아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성심 성가대 단장
최 주남 예로니모 올림

- 최주남 예로니모 단장님 12/28-1/25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에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재임 마태오 형제님, 연말 휴일을 맞이하여 1월 2일 귀국 여정으로 고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즐거운 여행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1 예수님께서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 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 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5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 ‘유다 땅 베 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걸고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7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8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9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그 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11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 다.
 12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 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1분 명상

♡ 새해엔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 이 채



당신이 아무리 큰 나무라 해도
 한 그루의 나무로는 산을 이룰 수 없으며
 당신이 아무리 찬란한 별이라 해도
 별 하나로는 하늘을 채울 수 없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하루 하루 참으로 어려운 이 때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것은 마음이겠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나눌 것이 더 많음을 깨달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한 해, 희망의 한 해를 열어갑시다.

마음마다 화평이 깃들고
 집집마다 웃음꽃이 가득하여
 사람마다 만복이 오는 소리
 새해엔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은 복되시어라.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루카 19. 38)”

금주의명언

“기쁨은 영혼을 낚을 수 있는 그물이다.”